

HIV 감염인이나 환자가 조심해야 할 것들이 많다.
몸을 건강하게 하기 위해 실시하는 예방접종의 경우,
다음과 같은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에이즈와 예방접종

감염인은 에이즈 발병전 접종이 효과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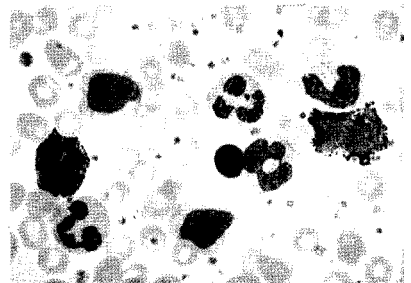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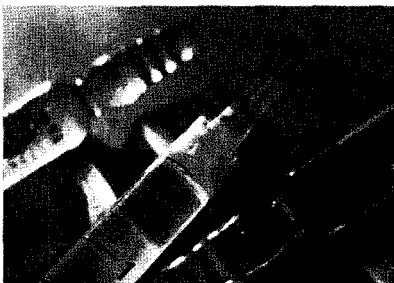
:: 이 선 희 부산대 의대 감염내과 교수

병은 안 걸리는 것이 가장 좋지만 걸릴 가능성이 있으면 미리 예방하는 것이 최선이다. 예방접종은 감염병을 예방하는데 가장 적은 비용으로 가장 큰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다. 예방접종은 질병과 관련된 항원을 이용하여 사람에게에는 병을 발생시키지 않으면서 방어적 면역만 획득하게 하는 방법이다.

가장 좋은 백신은 부작용은 없고 효과는 좋은 것이다. 그러나 백신 효과는 숙주의 면역상태, 연령, 백신의 종류, 투여시기, 투여방법 등 여러 가지 요인에 영향을 받는다. 특히 면역 결핍자의 예방접종은 일반인과는 여러 가지로 다른 점이 많다.

첫째로 면역결핍 상태이므로 일반인에 비해 접종 효과가 감소된다. 즉 예방접종을 해도 일반인에 비해 효과가 떨어진다는 것이다.

둘째로 안정성 문제이다. 백신은 불활성화 사백신과 약독화 생백신으로 나눌 수 있다. 불활성화 사백신은 병원체를 불활성화 또는 사멸화시켜 면역원성 항원으로만 역할을 하도록 한 것이다. 약독화 생백신은 약독화된 생균을 접종하는 것이므로 생균이 오랫동안 면역반응을 유발하여 장기간 면역력이 지속되는 장점이 있다. 불활성화 사백신은 면역저하자에게 투여 가능하지만 약독화 생백신은 백신내 병원체가 병을 유발시킬 수 있으므로 면역저하자에게는 일반적으로 투여하지 않는다. 이러한 생백신에는 홍역, 풍진, 볼거리, 폴리오, BCG, 경구용 장티푸스 백신 등이 포함된다.



HIV 감염 환자에서 백신의 접종효과는 일반인에 비해 감소하며, 특히 에이즈로 진행하여 면역저하가 심한 경우에는 특히 접종 효과가 낮다. 그러므로 예방접종을 하려면 에이즈로 진행하기 이전인 감염 초기에 백신을 접종하면 적절한 반응이 유발될 수 있다. 항레트로바이러스제 치료를 시작한 경우라면 면역 수준이 향상되고 난 후에 접종하는 것이 접종효과를 더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

면역상태 고려하여 예방접종

에이즈는 HIV 바이러스에 의해 지속적으로 CD4 림프구가 파괴되면서 점차 면역이 고갈되는 질환이며, 결과로 각종 기회감염이 발생하여 사망에 이르게 되는 질환이다. CD4 림프구가 감소할수록 숙주의 면역은 감소되며 역으로 기회감염의 빈도는 증가한다. HIV 감염 치료에 항레트로바이러스제가 도입된 이래로 환자들의 예후는 상당히 향상되었다. 항레트로바이러스 치료는 CD4 림프구의 수만 증가시키는 것이 아



니라 그것의 기능도 함께 증가시킨다. 그러므로 HIV 감염은 환자의 면역저하 상태뿐만 아니라 치료 여부에 따라 면역저하 정도가 다양하며, 에이즈 환자의 예방접종에는 이러한 점들이 고려된다.

HIV 감염 환자에서 백신의 접종효과는 일반인에 비해 감소하며, 특히 에이즈로 진행하여 면역저하가 심한 경우에는 특히 접종 효과가 낮다. 그러므로 예방접종을 하려면 에이즈로 진행하기 이전인 감염 초기에 백신을 접종하면 적절한 반응이 유발될 수 있다. 항레트로바이러스제 치료를 시작한 경우라면 면역 수준이 향상되고 난 후에 접종하는 것이 접종효과를 더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 백신 접종으로 인해 HIV 증식이 증가되어 HIV 감염이 악화될 위험을 우려할 수 있지만 예방접종으로 인한 효과가 훨씬 크므로 필요한 경우에는 예방접종을 하는 것이 권장된다. 일반적으로 약독화 생백신은 투여하지 않는다.

접종효과가 HIV 악화위험보다 훨씬 커

HIV 감염 성인에서 일반적으로 추천되는 백신으로는 독감, 폐구균, B형 및 A형 간염 등이다. 독감 백신은 유행시기 이전인 9-11월 사이에 매년 1회 접종한다. HIV 감염자는 일반인에 비해 폐구균 감염이 종종인 경우가 많다. CD4 세포수가 낮은 경우에는 폐구균 백신의 접종효과가 감소된다. 그러므로 CD4 세포수가 200개 이상인 경우 또는 항레트로바이러스제 치료 후 200개 이상으로 상승한 경우에 23가 다당질 폐구균 백신을 1회 접종하고 5년 후에 1회 추가 접종이 추천된다. B형 간염에 감수성인 환자는 B형 간염 백신의 3회 접종이 필요하다. A형 간염 위험성이 높거나(약물 사용자, 동성애자 등) 또는 만성 간질환 환자(B형 또는 C형 간염)들 중 A형 간염 감수성인 사람은 A형 간염 백신 2회 접종이 필요하다.